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한국 2012 Vol. 495 11 November
YWCA

YWCA 100년을 향한 비전 정의·평화·생명 사회를 향하여



글 | 최양님(광주YWCA 회장)

한국YWCA가 해맞이 축제로 90주년을 맞이한 후 벽찬 감동으로 한해를 시작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긴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권, 복지, 정의와 평화의 지경을 넓혀 오신 모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Y, 서울Y와 함께 90주년을 맞는 광주YWCA 27대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며, 그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보내 온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족의 암흑기에 창립된 YWCA의 90년은 굽이굽이 소외된 이웃들, 특히 고통 받고 억압받는 여성들과 고락을 함께해온 여성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자 했던 YWCA, 그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낙의 너울을 벗고 여성과 사회의 징검다리를 놓아 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사랑과 평화의 밑돌이 되어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구국 및 독립운동으로 시작하여 계몽운동과 사회운동 성인 문화교육을 통한 여성의 의식개혁,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사회복지사업, 민주, 인권, 평화통일운동, 환경보존운동 등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과 사랑으로 다양

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 놓여있고 우리 사회에는 폭력과 차별, 파괴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어가려는 YWC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획해 두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실망감과 좌절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90년의 업적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성의 섬세한 사랑으로 사회 곳곳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돌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나눔으로 평화'를 이루어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지 않고 서로 돌보는 정의사회,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평화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공생하는 생명사회를 소망하는 YWCA 100년을 향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돌봄과 나눔의 정의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갈 우리의 다짐과 각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100년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 참여할 YWCA 전국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Cover Story

2012 YWCA ITI 참가자 DMZ 방문

'여성폭력 추방과 평화 구축'을 위해 전 세계에서 30개국에서 모인 여성들이 폭력과 단절의 상처로 남아있는 DMZ를 방문하였습니다. 국가, 인종,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인류애적 아픔을 공유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Contents

2012 Vol.495 11

- 03 90주년 특별기고 ● 정의·평화·생명 사회를 향하여 | 최양님
- 04 YWCA 역사읽기 | Y돌봄 정책 ● 대학Y 이야기 | 정유진
- 06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2012 YWCA ITI(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 최윤영
- 12 체험, Y현장 ● 전 세계 YWCA 자매들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다 | 고은주
- 14 YWCA와 사회 ●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올라 | 이영아
- 16 Y-정책 | Y돌봄 연구소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한국YWCA | 돌봄과살림팀
- 18 | Y돌봄 현장 ● 세계협동조합 현장에 가다! | 배정미
- 20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
- 22 북한을 만나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역할 | 전연숙
- 24 평화의 여정 ● 다름을 통해 배우다 | 최수신나
- 26 YWCA 생명이야기 ● 탈핵의 길은 생명의 길 | 이윤숙
- 28 평화사선 ● 다큐멘터리 Women, War and Peace | 김지혜
- 29 월례아침기도회 ● 나눔으로 평화를! | 강교자
- 30 연합회 소식
- 31 회원YWCA 소식



대학Y 이야기

글 | 정유진(연합회 실행위원)



한국Y 창립이 1922년 3월 북경 청화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대회에 한국의 기독교 여성대표로 김필례, 김활란 두 창설자가 참석하면서 시작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Y는 창립 초기부터 기독교에큐메니칼 운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국Y 운동을 이끄는 중심이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한 대학의 전교생의 90% 이상이 Y회원으로 등록하여 대학Y 회장이 총학생회장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던 대학Y가, 당시 에큐메니칼기독교학생운동 안에서 함께 연대했던 YMCA, KSCM 과의 통합 논의에서 독자성 유지를 결의(1968년)하면서 WSCF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연합회가 관리해 오던 대학Y를 회원Y로 이관하면서 대학Y는 대학 사회의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캠퍼스 중심에서 센터 중심의 조직적 변화와 함께 회원 수의 감소, 조직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학Y 재건 결의와 재건 노력

1994년 7월 개최된 제32회 전국대회에서 약화된 대학Y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대학YWCA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에 연합회는 대학Y정책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Y 재건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1995년 1월 대학Y전국협의회에서 전국의 대학생 대표와 실무자들이 함께 대학Y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에큐메니칼기독교학생운동으로

의 재건을 위해 여성문화운동과 지역사회참여운동을 두 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재건사업이 진행되었다. 1995년 7월 전국대학생여성포럼과 1996년 2월 국제자원활동연합캠프를 시작으로 매년 대대적인 대학생 전국행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대학생들이 대학Y 회원조직과 운동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학Y는 중앙임원과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회원조직 강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 조직논의가 제기된 것은 대학Y전국협의회 규약개정에 관한 부분이었다. 대학Y 조직이 회원Y로 이관되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대학Y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약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학Y정책연구특별위원회와 중앙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학Y를 넘어 한국Y 전체가 함께 회원운동을 위해 논의해야 할 회원정책과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Y 안에는 회원Y의 지도 아래 다양한 대학생 활동이 산재해 있었다. 대학Y중앙임원회에서는 다양한 대학생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 영역들을 크게 여성, 문화, 교육, 환경, 지역사회참여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생활문화운동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장인정신을 가지고 YWCA 목적과 정신에 입각한 삶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대학Y 내 영역별로 소속된 동아리 혹은 클럽 조직들이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지원하는 체제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전국협의회에서 다양한 일상활동과 실천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대학Y 회원들에게 전국조직으로서의 소속감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해마다 열리는 국제자원활동연합캠프와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의 YWCA 회원들과 공유하고 국제적인 운동으로 모색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이렇게 처음 대학Y 활성화를 위한 3년의 기간 동안 대학Y는 전국단위 프로그램과 회원조직지원을 통해 YWCA 운동정신에 기반하여 대학생 회원들이 스스로 삶에 기반한 운동과제를 찾고 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회원이 주체가 되는 회원운동조직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회원교육의 장이며 회원들이 성장해가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실패를 교훈 삼아 작은 성과에 함께 기뻐하며 대학Y 재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1998년 캠퍼스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다. 변화된 캠퍼스 안에서 대학Y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략적으로 대학Y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이 동일하게 'YWCA 대학생주간'을 해마다 선포하고 전국의 대학Y가 함께 캠퍼스 안에서 대학Y를 알리고자 하였다. 대학생주간 사업은 한국Y 전국대회에서 제안된 중점사업 중 대학Y전국협의회에서 결정된 전국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캠퍼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회원활동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중앙임원들과 회원Y 내 회원지도력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진행되면서 회원운동으로서의 경험을 쌓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 대선과 관련하여 대학Y는 대학생주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새내기유권자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캠퍼스 내 올바른 선거참여와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새내기유권자 다짐 손도장 찍기를 진행하고 서울 명동에서 전국새내기유권자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처음 새내기유권자로 투표했던 경험을 되살려 '처음처럼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기독교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대학Y 운동을 꿈꾸며

대학Y 활성화를 위한 재건 노력 속에서 대학Y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Y 전체의 회원운동정책과 관련한 것으로 한국Y가 지향하는 운동의 가치와 운동이념, 운동 방향과 목적에서 구체적인 운동정책과 실천까지 오늘 이 시대에 한국Y가 지향하는 회원운동의 방향과 큰 틀 안에서 대학Y 운동이 재검토되고 그에 합당한 지원과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실무구조와 재정기반 속에서 회원들의 열정만으로 대학Y가 주체적인 회원운동을 고민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한국Y 창립 초기 대학Y가 한국Y 운동을 견인하는 견인차였다면 이제 90년을 지나오면서 성장한 한국Y 안에서 대학Y는 회원운동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더 근본적으로 대학Y가 한국Y 운동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기반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1999년 대학Y정책연구특별위원회는 대학Y회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학Y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그 협의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는 대학Y가 보다 연합회와 회원Y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회원운동조직으로 성장해가야 하고 운동방향으로는 한국사회가 이뤄온 시민사회운동의 성장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시민사회운동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값진 재건작업의 시간을 통해 이제 대학Y는 한국Y 9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Y가 새로운 회원운동체로의 거듭남을 꿈꾼다. 그것은 기독교시민사회운동에 기반한 회원이 주체가 되는 회원운동이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한국Y의 목적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과 나눔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운동이다. 한국Y의 건강한 회원운동, 대학Y 운동을 다시 기대해 보는 지금 이 순간, 대학Y 재건을 함께 하며 뜨겁게 YWCA를 사랑했고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 속에서 묵묵히 함께 회원운동을 고민했던 선배와 동료, 후배들이 참으로 그립다.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2012 YWCA ITI, 20년 만에 한국, 서울에서 열리다

글 | 최윤영(연합회 국제운동팀 간사)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서울 중구 명동의 연합회 강당에는 30여 개의 YWCA 회원국에서 온 53명의 ITI 참가자들과 연합회 실행위원들이 모여 개회예배로 2012 YWCA ITI의 시작을 열었다. 다음 날부터 장소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등포 소재)로 옮겨 심 없이 이어진 교육과, 11일 일요일 강원도 철원 지역의 DMZ 방문에 이어 11월 13일 화요일, 폐회예배로 5박 6일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여성폭력추방과 평화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교육을 뒤로하고, 53명의 참가자는 여성폭력추방운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 개회예배 인사나눔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의 약자인 ITI는 세계 YWCA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0년을 주기로 전 세계 YWCA 회원국을 대상으로 운동성과 역량강화 및 교류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 및 연대강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지난 90년대 초반을 마지막으로 21세기에 들어서 ITI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보다 작은 지역단위별 교육인 RTI(Regional Training Institute)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년 만에 열린 이번 2012 YWCA ITI는 '여성폭력추방과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YWCA의 9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TI는 한국YWCA의 90주년을 기념한다는 데에 그 기쁨이 더하였으며, 또한 30세 미만 젊은 여성의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 지도력 함양이라는 의미가 더욱 컸다.

11월 7일

11월 7일, 인천공항의 출국장에는 세계 30개의 YWCA 회원국에서 2012 YWCA ITI를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다소 지친 얼굴이었으나 공항마중을 나온 한국YWCA 자원봉사자 및 실무자들의 파란 YWCA의 조끼를 보자, 참가자들의 얼굴을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 숙소이자 모든 교육이 진행되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다음 날부터 이어질 교육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11월 8일

11월 8일 목요일은 한국의 날로 구성되었다. ITI는 세계YWCA가 주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진행을 맡았으며, 한국YWCA는 주관 단체로서 개회예배 및 개회식, DMZ 방문프로그램,



● 개회식_미셸 히켈린 세계Y부사무총장 개회사 ● 개회식_안드레아 누메즈 세계Y 젊은이사부회장 ● 개회식_차경애 회장 환영사 ● 개회식_원영희 세계Y이사 사회 ● 개회예배_최소영 목사 사회 ● 개회예배 ● 기자간담회

폐회식 및 숙소 등의 생활 전반을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에서 열릴 개회예배와 개회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숙소를 출발한 53명의 ITI 참가자들이 숙소 명동의 연합회 강당으로 들어섰다. 한국YWCA를 대표하여 차경애 회장과 세계YWCA의 부사무총장 미셸 히켈린이 참가자들의 목에 색동배너를 걸어주었다. 색동은 특히 명절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 착용함으로써 다채로운 색이 이루어내는 화려함으로 즐거운 기분을 더한다.

ITI 개회예배는 한국YWCA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 아울러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한국적 예배를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하고 구성하였다. 이천진 목사가 국악으로 작곡한 찬송가를 해금, 피리 등의 국악기와 함께 연주하였으며, 김미현 고양Y 이사와 이민호 카이스트 교수, 주하연 어린이의 독창을 통해 진한 감동을 전하였다. 예배 순서지와 PPT 등을 통하여 성경말씀과 예배의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성찬식을 통해 ITI 참가자 50여 명과 연합

회 실행위원 20여 명은 떡과 물 그리고 마음을 나누었다. 이어진 개회식은 원영희 실행위원(세계YWCA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차경애 회장이 한국YWCA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하였고, 비행기 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세계YWCA 회장을 대신하여 부사무총장 미셸 히켈린이 데보라 토마스-오스틴 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였다.

점심 만찬을 나눈 후 서울Y를 방문하였으며, 본격적인 2012 YWCA ITI 교육이 서울Y 마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53명의 ITI 참가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다. 이어서 '폭력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영상을 본 후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 후에는 한국의 밤으로, 연합회 실무자와 자원지도자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남산, 한강, 인사동 등을 돌아보았다. 이를 통해 서울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소개하는 한편, 교육장에서 벗어나 국제참가자들과 연합회 자원지도자 및 실무자들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11월 9일 11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ITI의 교육이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첫날이 소개의 시간이었다면, 9일부터는 참가자의 이야기 나눔의 시간이었다. 오전은 여성폭력추방을 다룸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대응에 관해 조용숙 여성연합 국제협력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세계YWCA회원국들의 주창운동과 프로그램의 사례를 각국 참가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그룹별 토론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식사 후에는 16명의 젊은 여성들이 연대를 다지는 젊은 여성들의 밤이 진행되었다.

11월 10일 10일 토요일은 능력 및 역량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CEDAW와 Shadow Report와 관련한 국제적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세계YWCA 부사무총장의 진행으로 그룹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CSW와 관련한 주제와 더불어 여성폭력추방과 관련한 Position Paper를 위한 기초 그룹별

작업이 이어졌다. 저녁식사 후에는 예비개일 디즈니의 다큐멘터리 필름 Women, War and Peace 상영 시간을 가졌다. 이 필름은 분쟁지역인 보스니아의 여성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영상 상영 후에는 감독인 예비개일 디즈니(윌트 디즈니의 손녀)와 참가자들이 함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 중 팔레스타인 참가자의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11월 11일 11일 주일은 한국YWCA가 준비한 DMZ방문의 날이었다.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 DMZ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국경선 평화학교의 정지석 목사님이 구성한 일정이었다.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철원에 도착한 50명의 ITI 국제참가자와 연합회 차경애 회장 등 임원단과 실무자들은 정지석 목사와 함께 철원문화센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서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날 철원은 추위와 강풍, 우박 등으로 야외활동에 어려움이

- 1 ITI교육_세계YWCA 데보라 토마스 회장
- 2 ITI교육_발표_한국참가자 대구Y 고은주 이사
- 3 ITI교육_그룹발표
- 4 ITI교육_예비개일 디즈니와 함께 영화감상평나눔
- 5 ITI교육_Women, War and Peace 상영





● DMZ방문 강원도지사 최문순과 함께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있는 날씨였다. 그러나 직접 DMZ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한국 분단의 아픔에 통감하고, 그 황량한 공간이 군 부속시설과 군사적 긴장으로 가득하여있음에 놀라워하였다. 그런 한편 60년 간 접경지역으로 남아있어, 역설적으로 환경이 잘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라워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DMZ 방문을 통하여 북한 땅의 여성과 아이들이 겪을 아픔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후 한국YWCA의 북한지원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2011세계대회 결의문 통과를 통해 세계YWCA의 운동으로 선정된 한국YWCA의 평화운동에 동참을 다짐하였다. 모든 방문 일정 후에는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와 철원군청의 정호조 군수의 초청으로 저녁만찬을 가졌다. 추운 날씨를 잊게 해준 한국 지방정부의 호의와 따뜻한 배려로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1월 12일 12일 월요일부터 재개된 교육은 주창운동과 캠페인 관련 주제를 소화하는 시간이었다. 오전에는 에비게일 디즈니를 강사로, 분단·갈등 지역과 분단 후 사회에서의 여성이 받는 영향과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지도력에 관한 강의가 있었으며, 이어진 그룹토의에서는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경험을 나누었다. 오후에는 국제적 주창운동과 캠페인과 관한 패널토론이 있었으며 이어진 조별활동에서는 여성폭력추방과 평화구축을 위한 전세계YWCA의 메시지 강화에 관련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일정 후에는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행사 이사장의 환송만찬이 있었다. 계속된 교육과 방문일정으로 다소 지쳐있던 참가자들에게 무척 즐거운 만찬이었다.

11월 13일 ITI 공식교육의 마지막 날인 13일 화요일은 YWCA의 미래비전의 날이었다. 참가자들은 이전까지 이루어진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2035년의 비전을 각기 구상하여보고 함께 나누었으며, 여성폭력추방 관련하여 YWCA의 Position Paper와 2012 YWCA ITI 실행계획을 정리,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ITI의 결과물들은 세계YWCA에서 검토, 수정을 통하여 추후 공유될 예정이다. 2012 YWCA ITI의 폐회식은 역시 원형희 세계



YWCA이사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차경애 회장의 송별인사와 데보라 토마스 세계YWCA회장의 폐회사, 수료증 수여로 구성되었다. 5박 6일의 교육일정을 마치며 53명의 ITI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나는 연대와 교류, 여성폭력추방을 향한 운동의 지속, 그 과정에서 일주일 간 함께 한 참가자들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이루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곧 다시 보자는 인사와 함께 눈물어린 작별을 하였다. ITI 기간 중 한국에 방문한 세계YWCA 회장 데보라-오스틴 토마스 회장은 ITI 교육에 참가하는 한편, 각종 언론 인터뷰와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여성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12일에는 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토마스 회장과 더불어 한국을 방문한 캐롤라인 플라워 세계YWCA재무이사와 안드레아 누메즈

세계YWCA 부회장(젊은여성)이 함께 일정에 참석하였는데, 특히 젊은 여성 지도력을 잘 보여준 안드레아 이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ITI를 통하여 한국YWCA는 세계YWCA회원국 중 건실한 재정과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활발한 운동과 프로그램 등을 펼치는 회원국임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90주년을 기념하여 주최한 ITI를 통해 한국YWCA 특유의 섬세한 실무력과 자원지도자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후원으로 성공적 ITI가 진행되었음에 세계YWCA 실무진은 물론 ITI 모든 참가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ITI를 통하여, 한국YWCA가 여성폭력추방운동과 평화구축에 관해 더욱 운동성을 강화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재확인한 국제적 연대가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전 세계 YWCA 자매들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다

글 | 고은주 (ITI 한국참가자, 대구Y 사회개발위원회 위원)

한국YWCA연합회는 세계YWCA 주최 ITI(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 국제지도력훈련)를 한국에서 유치하였다. 나도 한국참가자로 이번 ITI에 함께 하였다.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으나 국제지도력훈련답게 집중적이고 치열하게 '여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53인의 YWCA 대표들은 ITI를 통하여 여성폭력에 맞서고 평화를 구축하는데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결단하였다. 이번 ITI는 참가자 중 40%가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폭력을 중지시키고 2035년까지 평화를 확립하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ITI 참가자들은 YWCA 운동의 가치 아래 여성폭력과 평화 확립에 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Global Position Paper 토대를 세우고 이를 인준하였다. Position Paper에서 참가자들은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성불평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따라서 성불평등과 권력의 불균등, 자원에 근접할 수 있는 불균등이 지속되는 한 여성폭력은 계속하여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SCR 1325(유엔안보결의안 132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325)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폭력과 분쟁에 맞서는 애드보커시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행동의 변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동의 노력과 운동을 펼쳐나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6일간의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참가자들은 여성폭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서로의 경험과 모범적인 사례를 나누었다. 그리고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와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포함하여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ITI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나누고 싶다.

Women, War and Peace Film (여성, 전쟁 그리고 평화에 관한 영화)

애비게일 디즈니(Abigail Disney)가 제작한 보스니아 내전 관련 다큐멘터리 "I came to Testify" (나는 증언하기 위해 왔습니다)를 감상하였다. 이 영화는 16명의 여인들이 헤이그에서 보스니아 내전 중에 자신들과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강간한 남자들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이다. 2만 명의 여자와 소녀들이 내전 동안에 강간의 피해자였는데, 놀랍게도 단지 28 명의 남자들만 2002년 이후 강간으로 기소되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약자인 여성에게 행해지는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 분노가 생겼으나, 정의롭고 정당하게 폭력에 대항하며 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배웠다. 다큐멘터리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위해 일어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애비게일 디즈니는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믿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

이 힘을 모아 함께 일할 때 그들은 정치변화를 일으키는 핵 폭탄이다"라고 말했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방문

1953년 DMZ가 생긴 이래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 ITI 참가자들은 중무장된 DMZ를 방문하였다. 한국 DMZ는 냉전 시대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전선으로 알려져 있다. 1953년 남북은 휴전 협정을 하였으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난 상태는 아니며 거의 150만 명의 군인이 긴장 가운데 DMZ 양편을 지키고 있다. DMZ는 길이 2,491 km, 폭 4 km에 달하며 전쟁의 충격을 피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DMZ 방문은 철원북지문화센터에서의 예배로 시작되었다. 한국YMCA 평화생명센터 소장이며 BPS(Board Peace School)의 설립자인 정지석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였다. 다음으로 평화관람대(Peace observatory)를 방문하여 DMZ 전경과 북한과 남한 군인의 초소를 보았다. 망원경으로 휴전선 너머 북한의 선전용 마을을 볼 수도 있었다. 남한의 마지막 기차역 월정역에 들러 전쟁 이후 멈추어 버린 기차의 잔해와 함께 'The iron horse still want to run.(철마는 아직 달리고 싶다)'란 문구를 보면서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방문지로 이동하여 폭격으로 파괴되어 폐대만 남아있는 옛 북한군 노동당 당사를 보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숙연해 지기도 하였다. DMZ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ITI 참가자에게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한국YWCA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였다.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세계YWCA와 다른 나라 YWCA의 도움도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매일 아침 성경 공부

매일 아침마다 세계YWCA의 Ana Villanueva의 인도로 성경을 배웠다. 다윗과 바세바, 다말과 압눈,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등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여성폭력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재조명하였다. 종교는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등과 평화를 이루

는 근본이 됨을 배웠다. 처음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 시간이 약간 불편한 시간이었으나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ITI를 참가하면서 느낀 점과 제안 사항들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 세계YWCA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한국YWCA가 직접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에는 제한요인이 많으므로 세계YWCA의 도움을 받아 북한 여성과 어린이를 우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 분유를 북한에 보낼 때 세계YWCA를 통하여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통 지도자들과 공조해야 한다. 잠비아에는 전통적인 법과 국회에서 만든 법 두 가지가 있다. 잠비아YWCA는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였으나 전통법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여 여성운동의 도움을 얻어내었다. 잠비아YWCA 사례를 들으며 유교의 뿌리가 깊고 불교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여성폭력 근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교 지도자들과 불교 지도자들의 도움과 공조를 얻어야 함을 배웠다.

끝으로, 국가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YWCA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초은 씨가 교육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돕고 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수감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번 ITI 교육을 받으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한국문화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들이 한국의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ITI를 마치고 나서, 여성폭력에 항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YWCA인으로서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YWCA 자매들과 함께 결집된 힘을 모으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올라

글 | 이영아(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수지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아예 모른다고 했다. 6년 동안 동거남의 모진 폭력과 갈취를 견디면서도 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과 그 남자 아니면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은 그녀를 날마다 전단지 돌리는 일로 내몰았다. 그녀가 일 나간 사이 동거남은 지속적으로 의붓딸인 수지를 성폭행하였고, 결국 경찰서와 구청의 도움으로 동거남은 구속되고 그 식구들은 우리 쉼터로 입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생인 수지의 분노는 다른 입소자들과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걸핏하면 결석하고 엄마에게 갖은 욕을 해대는 수지를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가면 똥똥하고 더럽다고 아이들이 놀리고, 엄마가 옷도 잘 세탁해주지 않아서 막상 아침에 학교가려면 옷이 세탁기에 그대로 들어있어 짜증난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일 수지에게만 학교 안간다고 잔소리만 했던 것이다. 그 날부터 우리 쉼터의 모든 식구들은 수지엄마에게 세탁부터 아이들 밥 챙기는 것, 청소 등 일상생활기술을 가르치고자 했고, 수지에게는 욕 대신 요구를 표현하는 대화기술을 가르쳤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았다. 자존심이 센 수지엄마는 다른 엄마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퇴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잘 참고 따라한다고 칭찬받던 수지는 한 번 씩 쉼터를 발각 뒤집어 놓는 사건을 일으키는 등, 기간연장까지하며 입소하였던 수지네 식구는 그 어떤 입소자들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렇다면 현재 수지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수지는 중학교 입학 후 소위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현재는 성매매청소년보호쉼터에 있고, 두 동생들은 보육시설에, 엄마는 기도원에 있어, 결국은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수지엄마를 보호하고 있는 원장님 말에 의하면 수지가 엄마를 보러 와서는 많이 울더라는 말을 듣고 나 또한 수지네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이 가족 사례는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현장의 단면(斷面)이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순환구조를 보는 것만 같다.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가출과 성폭력의 위협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서울시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진행한 성매매여성 상담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여성 절반이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아동·청소년기가 72%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발생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신고율은 8%에 불과한데 이유 인즉슨, 경찰이 출동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며 그냥 돌아간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은 나타나는 양태는 다르나 여성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뿌리는 같다.

상담소는 사회변화의 바로미터(barometer)와 같다. 눈에 띄는 최근의 변화 중 하나는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들부터 시작하여 중학생 성매매 여학생, 음란물 중독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폭력가해자들의 빠른 저(低)연령화다. 뿐만 아니라 앞의 수지네 사례에서처럼 여성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들까지도 하나같이 상처받은 원가족의 경험을 갖고 있다. 교도소에서 만난 성폭력 전과자 K는 ‘아버지’라는 단어조차도 본인에게는 ‘트라우마’(trauma)라는 고백하는 걸 보며 또 다시 울 수밖에 없다. 쉼터에 엄마들과 함께 들어온 아이들이 퇴소 이후 부모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이렇게 재범교육장에서 만나면 어찌나 하는 내 그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K를 통해 확인받은 것만 같았다.

또 다른 하나는 급증하는 아동성폭력이다. 이의 원인을 아동대상의 부족한 성교육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오히려 조두순사건은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싫어요!”라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도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성폭력예방교육도 인지특성과 학습능력을 고려하는 발달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지원과 아울러 가해자 재범방지교육도 성폭력근절의 처방 중 하나일 수 있다. 가해자들이 교육 중 하나 힘들어 하는 것이 ‘피해자 공감’(empathy)부분이다. 이유는 그들이 누구에게든 공감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나올 감정이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에게 일본에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이렇게 공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양육된 아나는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공감한다고 한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한다고 한다. 공감받기는 커녕 마음껏 울 수조차 없는 환경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이들로 자란 자들이 바로 성범죄자들이다.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중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가 있다.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 중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깬다는 목적의 ‘얼음깨기(ice-breaking)시간’에 그 범죄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문득 ‘너는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이웃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들었다.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고 내 가족의 행복이 지켜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외로워서 범죄하고, 성매매하는 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은 어쩌면 가족이면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갖는 그런 작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이 그리운 또 다른 수지나 K들은 오늘도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올라’(눅23:28)고 말씀하신다. 상담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가해자들을 볼 때 이들 역시 가해자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피해자가 아닌가 싶다. 여성폭력피해자로서의 부모에 의해 길러진 또 다른 희생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물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기쁘게 흘려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불쌍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사회의 그물망은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한국YWCA

글 |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08년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가 '08년 금융위기에도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한데서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전격적으로 제정, 2012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부처와 관계자 간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기본법 제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협동조합 유형과 조합법인의 성격 등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쟁점관련 현안을 살펴본다.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사업법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하고 있다. 의결권·선거권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을 가지며,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이 가능하다.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금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층 구조'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최혁진 본부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되는

추세이며, 이처럼 별도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된 이해관계자의 성격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과 조직운영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유형별 협동조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즉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할 것인가, 사회적인 공익성 담보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등에 따라 일반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뉘게 된다. 둘째,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필요충족이 주목적이고 조합원의 참여 동기가 생활, 소비자원으로서 구매대행이나 서비스나 자산공유가 주요 성격이면 소비자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사업상 필요에 의해 참여하지만 일자리 우선이면 직원협동조합, 공동의 사업업무 대행처리 목적이면 사업자협동조합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원이

(서비스)제공과 이용의 성격을 구분하기 모호하다면 다중 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조합원 500명이상, 출자자본금 1억 원 등의 비교적 설립기준이 까다롭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관련 주요 쟁점

2012년 11월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개최한 전국의 세 차례 설명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협동조합활동가들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쟁이 자못 뜨겁다. 첫째, 일반 협동조합의 영리기업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와 비영리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대해,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법정적립금 분배를 금지시키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비영리'적 성격을 확보해야 한다고 논의 중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협동조합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일정한 수준의 이익배분을 하더라도,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법정적립금을 분배할 수 없는 성격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둘째, '직원협동조합'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인력과전형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데, 이들 협동조합들이 '노동' 그 자체를 강조하고, '노동력의 제공'을 활동으로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CICOPA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을 구분하기 위해, 직원협동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노동자들이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 유형' 등 풀어서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을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등 논쟁이 뜨겁다. 이밖에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를 개별법과 기본법을 동시에 갖춘 나라로 부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논의될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한국 YWCA에의 시사점

연합회 돌봄과살림팀에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한국YWCA 돌봄사업 조직 전환 연구'를 위한 TFT'를 운영, 한국YWCA 돌봄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TFT에서는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 운영(안)을 제안하였으며, 일반·직원협동조합 유형 등의 몇 가지 세부운영(안)을 52개 회원Y 회장,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TFT가 보다 중요하게 제안하는 것은 법 시행초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해 3~4개 회원Y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한편, 시범회원Y를 중심으로 Y 회원 공동체 조직 점검 등의 제반 시스템 정비 및 구축이다.

협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YWCA가 협동조합 설립 등에 조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법 제정과 시행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나라 시민운동단체의 존재가치나 필요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Y운동의 '선택'과 '집중'이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어떤 운동이든 지역에 기반하여 연대와 협동의 방식을 통해서 전개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계협동조합 현장에 가다!

글 | 배정미(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해외정책연구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국 맨체스터 센트럴센터에서 개최되는 2012 세계협동조합박람회(ICA) 참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게 되었다. 먼저 2012 세계협동조합박람회(ICA)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개최되는 박람회로써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 농협을 비롯한 약 40여 개국에서 170여 개 전시관이 마련되어 86개국 1만여 명의 협동조합인을 맞고 있었다.

연수 첫째 날은 세계협동조합박람회 참관 및 투어가 주된 내용이었다. 영국 협동조합의 대가인 Robin Murray 씨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선진적인 캐나다 퀘벡과 이탈리아 참가자 등이 사례 발제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였다. 이 워크숍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제는 '협동조합 방식의 구현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한 모색이었다.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세계가 주목하게 된 협동조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이 더해지는 즈음, 세계 최초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처음으로 성공시킨 로치데일 매장과 박물관 투어에 나섰다.

1844년경,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임금이 3분의 1로 낮아진 가운데 물가는 2배이

상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28살이던 로치데일이 28명의 친구들과 도시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서 각 1파운드씩 28파운드를 모아 생필매장을 열게 된다. 가장 중요한 생필품인 버터, 설탕, 오트밀 등을 정직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 협동조합 방식의 매장을 성공시켰다. 로치데일과 그의 친구들이 세운 이 때의 몇 가지 원칙은 2012년 현재까지 세계의 협동조합을 움직이는 기본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세계 92개국에서 약 10억 명의 조합원을 아우르는 248개 협동조합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둘째날 아침, 전날 워크숍에서 만난 웨일즈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활동가 3명, 웨일즈 협동조합 관계자인 David Smith 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Age Concern의 Jeffery N. Hawkins,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인 CARIREFT CYMRU사의 Adrian Poper 씨 등과 예정하지 않았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한국에 널리 알려진 영국 북아일랜드 홈케어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알고 있던 터라 이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영국의 사회서비스 복지 는 영국 보건국(NHS)이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 (Care in the Community Programme)을 도입하여 1991년 지역사회 보건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했음에도 20여 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발전된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웨일즈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말하는 돌봄을 주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인식과 현황이 한국의 현상들과 너무 닮아있었고 나의 고민이 바로 그들의 고민이기도 하였다. 역사 이래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은 정당한 평가를 외면하

거나 낮게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자아존중감을 갖기는 커녕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돌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사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속한 활동가들에게도 고민이었다. 우리는 발전적인 미래상과 그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협동조합을 발전시키자고 약속하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오전 웨일즈 협동조합 관계자와 만남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함은 오후 4시, 영국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이자 허리티지 신용협동조합 이사로 재직중인 Ian Snaith 씨를 만나면서 풀렸다. 영국은 관습법이라 큰 경제만 설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감독기관에서 위임받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협동조합법 역시 1800년대 처음 제정된 이후 개정만 거듭해 오고 있어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도 협동조합은 유리하게 개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행선지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였다. 인구 500만에 불과한 스코틀랜드 지방정부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인 1,300억 원에 버금가는 5,300만 파운드를 제3섹터 영역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법제도를 앞서 발전시킨 우리나라에 시사적인 바가 컸다. 첫 번째 방문기관은 스코틀랜드의 3,000~4,0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기업 협의체 가운데 하나인, 'The Voice of Social Enterprise'다. 이 기관은 사회적기업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협의체에 속한 사회적기업의 종류 또한 다양했다. 이외에도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The Engine Shed',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상설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The gallery on the cornal',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정서를 감안, 저소득층 지역에 'Spartans Community Football Academy'라는 마을 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을 방문했다.

2012 협동조합박람회의 마지막 일정은 영국 협동조합의 대가인 Robin Murray 씨와의 만남이었다. Robin Murray 씨와의 만남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이번 박람회에서도 '공정무역'이 주요 주제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는 1985년부터 공정무역기관인 '트윈 앤 트윈 트레이딩(Twin and Twin Trading)' 초기 활동부터 함께 해온 현장 활동가이다. 그는 공정무역이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 다 명분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윤리적 소비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연대를 위한 관계맺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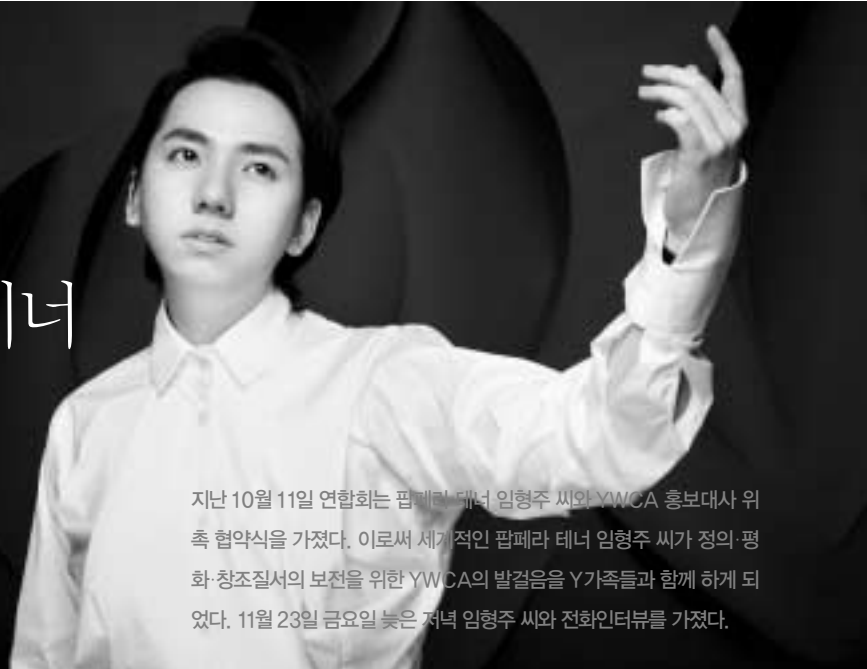
둘째는 사회를 혁신시키는 위해 그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실천되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Participle을 방문했는데,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아이디어' 하나를 정점으로 삼아, 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명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한 사례였다. 이곳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봉사자 모두 5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한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소소한 일상사의 각종 문제-가게 가기, 구청서비스 신청 및 이용, 미장원 방문 등-에 대해 문자를 보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봉사자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아직 시범기간 중임에도 2천여 명의 회원이 등록됐으며, 날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 현재, 사회 봉사시간 14,600시간, 69만 파운드에 달하는 투자자 유치, 32개 구청에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으며 1만 250명이 전화 상담을 했고, 17만5천 명에게 뉴스레터를 발송중이라고 한다.

연수를 마치고, 영국의 각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도되고 정착됨에 따라 영국의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그러나 그 어떤 도전이든지 우리 한국사회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몇몇 영국인들의 의식을 공유하면서 협동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법, 제도 마련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YWCA가 연구 중이고, 시도하려는 사회서비스관련 협동조합은 매우 전망 있는 분야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식하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YWCA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Y는 저의 운명입니다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

정리 | 편집실



지난 10월 11일 연합회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와 YWCA 홍보대사 위촉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가 정의 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YWCA의 발걸음을 Y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11월 23일 금요일 늦은 저녁 임형주 씨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Q 반갑습니다.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올해, 임형주 씨를 한국YWCA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형주 씨와 YWCA와의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남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첫 시작은 지난 8월 SK핸드볼경기장에서 있었던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재능기부로 특별공연을 선보이면서 Y회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YWCA는 제가 이번에 공연을 하기 전부터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현재 YWCA연합회 김형 부회장님과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데 부회장을 통해서 YWCA운동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회원대회에서 공연을 하면서, YWCA회원 모두가 공연을 잘 봐주시고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차나에 YWCA연합회 홍보대사 제의가 들어왔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YWCA 홍보대사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90주년을 맞이한 YWCA연합회 최초의 홍보대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타단체는 보통 홍보대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데, YWCA연합회 홍보대사는 저 혼자일 뿐만 아니라 90년만의 첫 홍보대사이기에 부담과 함께 애착도 더욱 크게 느낍니다.

Q 벌써 내년도 스케줄까지 꽉 차 있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실 텐데, 이런 중에서도 흔쾌히 YWCA의 홍보대사로 나서신 데에는 임형주 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성단체인 YWCA에 남자 홍보대사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이면 여성 홍보대사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성단체의 여성 홍보대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남자 홍보대사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YWCA 90년 최초로 남자인 제가 YWCA의 홍보대사로서 계 된 것은, 저의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나 할까요(웃음).

Q 임형주 씨께서는 항상 '성악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기부 천사'라는 수식어도 붙이고 싶을 만큼, 기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재를 털어 비영리 단체인 '아트원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어린 재목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신데요. 기부는 물질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임형주 씨가 가지고 계신 나눔에 대한 생각, 혹은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기부는 제가 좋아서, 행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것은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저는 나눔, 기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부라고 할 때, '나도 지금 힘든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부는 액수의 크고 작음이나, 기부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기부이고, 단돈 천 원도 아프리카 아이들이 두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액수가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부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쑥스럽지만 제가 기부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기부의 기쁨과 중요성을 사회 곳곳에 알리고 인식시키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임형주가 오랫동안 기부를 하는구나', '임형주가 저렇게 오랫동안 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이 저를 통해 그런 궁금증을 갖고 기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때 가치 있고 기쁨이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Q 지난 11월 18일에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2012 임형주 콘서트 '클래식 스타일' 타이틀로 공연을 펼치셨는데요. 평소 대관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내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조수미, 조용필, 조영남 이후 네 번째로 단독 콘서트를 갖게 된 것도 화제가 됐지만, 그 날 임형주 씨의 환상적인 완벽한 무대로 또 한 번 청중들을 압도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형주 씨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도 있겠지만 피나는 노력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YWCA는 우수한 여성리더들을 배출하였고 지금도 Y를 통해 여성리더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꽃은 금세 질 수밖에 없어요. 꽃이 피려면 비바람도 맞아야 하고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하죠. 온실 속의 화초는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자생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으로 보았을 때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은 절반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만 노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를 예로 들면, 오만하게 재능만 믿고 자만하게 되면,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이치입니다.

Q 임형주 씨는 언제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저는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과 후 동요부르기 특활반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말 소리가 특출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재능 발견은 늦은 편이었지만, 노래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YWCA 홍보대사가 되기도 전인 지난 8월 YWCA 회원 4,500여 명이 모인 '전국회원대회'에서 축하 무대를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때 전국의 Y회원들을 만나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또한 임형주 씨 눈에 비친 YWCA가 궁금합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뜨겁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YWCA 회원들의 열정과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YWCA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크리스천 여성리더 양성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만 화려한 단체가 아니라 내실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속 있고 열정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YWCA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YWCA 홍보대사로서 Y에 바라는 점도 말씀해주세요^^
광주 Y 90주년 기념 음악회에 이어 28일도 부산 Y에서 공연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많은 분들과 공연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Y에 바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만큼 Y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지금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YWCA 100주년엔 Y회원 10만 명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대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사회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WCA 역사와 틀 안에서 유연하고 젊은 사고로, 90년 된 Y지만 젊은 Y로 늘 푸르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역할

글 | 전연숙(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성과는 남북 통합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주무부처로 담당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일개 부처가 전담할 수 없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무부처라 할지라도 여타 정부부처-지자체의 협력체계 외에도 민간단체 등 사회적 자원들이 함께 긴밀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최근 정부의 지원 정책은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그 직업에서 장기근속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건강, 직업능력 외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루 적용되고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할 수 있고, 이로써 그들은 스스로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

2012년 11월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4천 여명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전국 각 지역으로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정착을 시작한다. 거주 지역별로 3주간의 지역적응교육²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그리고 거주지보호기간(거주지에 편입한 날로부터 5년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정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거주지 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기초생계보호, 의료보호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역사회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시 최대 3년 동안 취업장려금을 최고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려금(200만원, 1회)을 지급한다.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례입학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1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1998년 7월 8일 개원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2 통일부는 전국 31개의 민간기관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사회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2011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5%로 일반 국민(61.0%)과 비교 시 약 5% 이상 낮고, 고용률도 49.7%로 일반 국민(58.7%) 대비 9% 낮으며, 실업률도 12.1%로 일반 국민(3.7%)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할 때부터 지역에 정착하는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지원하고 있고, 주거·의료·취업·교육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정착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우리(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그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착지원제도 중심의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당연시 하며 의존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실행에 옮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지원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착 초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흔히 우리 사회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평소 북한이탈주민과 잘 지내오다가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예: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가 발생하면, 이들을 북한(사람)으로 동일시하며 거리감을 두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섭섭함과 소외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국민

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이방인으로 낙인하는 부적 효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일회성 홍보나 행사보다는 생활 속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자조모임, 부녀회, 아이엄마 모임, 축구 동호회, 합창단, 친선 및 봉사모임 등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존재,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은 받는 사람', '일반국민은 주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방해하여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주 오랜 기간 이들을 국가와 사회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 주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해야

북한이탈주민이 부녀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지역 자원봉사모임의 임원이 되기도 하고, 방과후 공부방 도우미도 될 수 있고, 자녀 학교의 일일교사, 조기축구회의 감독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작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일부를 내놓아야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를 공유'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는 역할은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는 실천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실천은 남북 통합 시 북한주민과 함께 하는 여행 연습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 | 최수신(연합회 평화나눔팀 부장)

다름을 통해 배우다

평화의 첫걸음은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우는 것이다.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참여한 ‘탈북여성들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연수’는 남한과 북한 출신의 여성이 각자 다른 경험과 시각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며 통일 준비를 위한 생각과 실천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 일정은 미국 국무성 후원의 ‘국제방문자 리더십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으로, 미국 민주사회 체험을 통한 민관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방문처는 워싱턴 DC, 뉴욕, 샌프란시스코 세 도시로서, 미국무성, 유엔 여성(UN Women), 샌프란시스코 시군정부 등의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씽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여성유권자연맹, 북한인권위원회, 난민기구(Refugee Transitions), 민권센터(Min Kwon) 등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WIPP(Women Impacting Public Policy), 청소년 정치 재단(The Junior Statesmen Foundation), 전 세계YWCA 사무총장 무심비 칸요로가 대표로 있는 국제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등의 재단들이다. 이 열흘 간의 일정에는 남한 출신의 학자, 기자, NGO활동가 등 4명, 북한 출신의 교수와 활동가 2명, 그리고 현지통역 3명과 각 도시별 코디네이터 단체 실무자들이 동행하였다.

매번의 방문과 만남은 활발한 토론과 논의로 이어졌다. 미국무부 내 인권노동위원회 및 유엔여성에는 탈북여성들의

여성폭력 문제와 인권사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와 요청을 하였으며, 참가자이었던 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의 주선으로 예정에 없던 만남이 성사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 방문에서도 북한 지원과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수잔 솔티(Suzanne Scholte)는 북한인권위원회의 부대표로서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 지원과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다소 경직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참가자들과 격렬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그러는 중에 남한과 북한 출신 여성들의 시각 차이를 발견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되었고, 우리 정부의 햇볕 정책이 시작되던 90년대 후반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상세히 듣게 되었다. NK지식인연대 현인에 부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전기를 다 끊는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나라(북조선)가 망하는구나’ 생각하며 암담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배급이 다시 이어져서 나라 상황이 좋아졌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남한의 지원 덕택이었다는 설명을 이으며, 북한 정부의 무능함과 내부의 변화가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덧붙여 탈북자로서의 본인 경험이 객관적이거나 그 사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남한 사회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모습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오바마와 롬니의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진행되는 시기로 총 3차 중 2,3차분의 시청이 가능했다. 토론이 있는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두 후보에 대한 평가들이 아침 식탁 위

에서 오고 갔으며, 지지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나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이민자와 소수민족,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곳으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의 법무관은 미국의 대선 선거모금법이 정책보다 모금에 집중하게 하는 ‘머니 게임’이 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며 이 법을 개혁할 수 있는 후보로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여정들을 통해 발견한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민자 및 여성,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점이다. 미국은 주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다. ‘난민기구’, ‘민권센터’, ‘아시아여성쉼터’ 등을 통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많게는 45%를 상회하며, 기업의 지원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 프로그램도 축소되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염려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국 내에서 이민자, 소수민족, 여성, 성적소수자 등을 위한 단체들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강조하는 국내 정부정책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출신, 세대, 생각을 가진 이들의 소통과 화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두 가지 예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 사례인 ‘QPTV’는 뉴욕 퀸즈 지역에 위치한 지역 케이블 방송이다. 지역 주민들이 제작한 방송을 사전 검열 없이 내보내며, 가끔은 비상식적인 내용과 형식들이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지역주민들의 자치적인 평가와 요구에 따라 상영 금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영상물 교육 실시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돕고 있다. 즉,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면서도, 다양한 언어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으로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북한 출신 참가자는 물론, 남한의 우리도 부러움과 놀라움을 갖고 방송국을 돌아보았으며, 시민들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제도였다.

또 다른 사례는,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이라는 단체이다. 한국인들이 설립자이지만, 민족주의에 얽매이지 않

고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함께 폭 넓은 가치 속에서 활동하면서, 근처 퀸즈YWCA 여성상담프로그램 연계 및 타단체 연대를 통한 지역 법안 개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20년 전 한국에서 이민 간 386세대의 교육부장과, 1.5세대로 영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편한 젊은 사무총장이었다. 플러싱을 통과하는 7번 전철이 이민자들의 애환을 담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로 표현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 1세대는 이민자의 문제를 고민으로 갖고 있다. 반면, 이민 2세대는 코리안-아메리칸으로서 인종 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1세대와 2세대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다르게 굴러가면서도 한 곳을 향해 같이 간다는 이들의 표현을 통해, 누구 하나 나와 똑같지 않은 사회 속에서 당연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를 키우는 일이다. 미국 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정치참여운동을 처음 시작한 9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방문했던 뉴욕 여성유권자연맹은 약 250명의 회원들과 함께 고령의 여성회원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원들의 공헌이나 활약 없이 정체된 활동을 이어오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도력이 순환되지 않는 현장과 젊은 세대와 호흡하려는 노력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다.

반면, 마지막 날 방문한 ‘청소년 정치 재단’ (JSA)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청소년들의 밝고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 찼고, 실무자가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을 소개했다. ‘시민이 되라(Be the people!)’는 표어와 함께 학생 모의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며, 정부지원금과 동문회 장학금 이외에 예산의 대부분이 참가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고등학생들의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193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사 깊은 단체이다. 이 두 단체의 비교는 한국YWCA가 청소년 지원과 양성에 힘을 쏟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며, 차세대 관심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해주었다.

다른 출신, 다른 언어, 다른 사고를 지닌 개인들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실험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모습을 통해, 남한과 북한, 미국 각기 다른 명암을 가진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함으로 평화의 길을 내딛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탈핵의 길은 생명의 길

글 | 이윤숙(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올해는 유난히 더웠지만 추위도 성큼 성큼 빨리도 찾아왔다. 유달리 더운 여름 탓에 전력 사용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더니만,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며 더구나 혹한이 길어질 거라는 올겨울도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소모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거기다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핵발전소 납품 비리 사건으로 신고리 1호기, 영광 5, 6호기가 가동을 중단한 마당이라 이대로 가다가는 대정전 사태가 발생될 거라는 뉴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비롯이라도 하듯 전력 소비량은 급격히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력난이 예상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살아있는 나무들에게마저 수천 개의 쪼그만 알전구를 뒤집어씌운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하다. 두꺼운 외투바람으로 길을 나서도 상점이나 대형건물에 들어서기만 하면 땀땀하게 틀어댄 난방 덕분에 이내 외투를 벗어야 한다.

핵발전소 몇 기가 가동을 중단하면 올해 전력 수급에 엄청

난 차질을 빚을 거라는 뉴스는, 마치 핵발전소가 우리들의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난이 거꾸로 부정비리와 차별로 얼룩진 핵발전소를 줄이고 폐기하는 근거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소리치는 이유로 이야기되는 바탕에는, 지금의 안락함을 위해 언제나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우리들의 이기주의와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

위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정의하기 때문에

고구마 캐듯 드러나는 핵발전소 납품 부정 비리에 저항하며 핵발전소 폐기를 요구하는 영광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들끓어오르는 분노는, 영광주민들 자신만이 아니라 지역 자연환경과, 그 주변 못생명들의 목숨을 담보로 가동되어 온 핵발전소가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유지되어 그들을 죽음 일보 직전 상황까지 몰고가는 기막힌 차별구조에 대한 분노이다.

올해 1월 송전탑 건설계획에 저항하여 분신한 밀양농민의 죽음 또한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생태계와 지역농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송전탑의 부정의와 차별에 대한 피맺힌 절규이다. 밀양의 한 주민은 전력의 40% 이상을 쓰는 서울과 대도시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

“서울 같은 데 밤에 보면 꽃밭이거든. 그렇게 전기를 쓰면서와 전기가 모자란다 카노? 그런 전기좀 ㄷ면 얼마든지 되는데, 자기네들 전기가 필요하다면 전기 공장을 거기다 지으면 안되나? 왜 사람 죽여가며 이리로 끌고 가노? 그게 이해가 안되는 기라. 그게 분한 기라.”

이렇듯 핵발전소는 그것의 건설, 가동, 유지, 공급, 폐기 등의 전 과정이 차별과 부정의이다.

피폭을 감수하며 노동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생태계 파괴와 사고 위험에 일상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핵폐기물이 매장된 국토를 물려받는 미래세대에 대한 차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사고

이후 그 피해자들은 한번 더 차별을 경험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결혼을 거부당하거나 후쿠시마 번호판을 단 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일정 장소에서 배제되고 격리되는 상황이 그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핵발전소에 내재한 위험은 바로 대도시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핵발전소가 다른 존재의 생명을 위협하고 착취하여 가동되는 사실에 둔감하게 만든 채 에너지를 소비하는 핵발전소 차별구조의 가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어찌보면 누군가의 눈물과 공포와 생명을 희생하고 누리는 안락함, 그러면서도 그 사실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핵발전소의 가장 큰 죄악이다. 그것은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깨부수는 일이며, 또한 평화를 짓밟는 일이며, 온세상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위협하는 일이다. 핵이야말로 하나님 주권을 거부하는 ‘사망의 권세’이다.

그러므로 핵발전소는 그것이 모든 생명을 파괴할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뛰어넘어, 부정의와 차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햇볕과 바람을 끌어안아 정의, 평화, 생명을!

우리들은 언제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이 엄연하고 몸서리치는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위험을 경고해도 핵기술의 잠재적 폭력성과 그 차별성에 무감하다. 일본의 변영과 안락함을 지명해준 핵발전소가 그 견고한 안전신화를 간단히 무너뜨리고 무참하게 폭발하여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이르는 죽음의 방사능을 뿜어낸 후에야 그 폭력적인 파괴력에 몸서리친다.

후쿠시마의 처참한 결과를 경험한 후에야 일본은 비로소 핵발전소 폐기의 길로 돌아섰다. 후쿠시마의 비극 이후 일본은 54기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서도 두 차례의 여름을 큰 탈 없이 보냈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별다른 정전사


태 하나 없이 말이다.

핵발전소라는 어마어마한 차별구조 위에 서서 에너지를 뿜 쓰는 호사를 누려온 일본 국민들은 이제 그것이 자신의 목으로 날아드는 죽음의 부메랑이 되는 순간 자신들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후쿠시마 사태는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가 탈핵을 위해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2030년까지 약 40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전 비중을 59%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리1호기 등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연장가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대재앙을 원전수출 경쟁의 유리한 발판으로 삼고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에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해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핵발전국가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구상까지 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비극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탈핵의 길로 가기보다 핵발전소 확대라는 죽음의 길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되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탈핵을 약속하고 명확한 대안에 너지 정책을 제시하는 녹색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를 원치 않는 가해자로 만드는 차별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손으로 하나님 주신 햇볕과 바람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돈과 우리아이들의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후쿠시마의 한 어린이의 이 절박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도 다시 한번 크게 외쳐야 한다. 

다큐멘터리 Women, War and Peace

글 | 김지혜(한국참가자,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간사)




여성폭력을 주제로 한 이번 ITI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에비게일 디즈니의 방한으로 그녀가 제작한 ‘여성, 전쟁 그리고 평화’ 시리즈의 일부분인 “I came to testify”를 접하게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 중 무차별 강간과 성폭력에 노출되었던 16명의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하는 일이며, 그들이 대신한 다른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평화, 여성, 권리, 연대 등 YWCA 목적문에 나오는 단어를 듣고 또 말한다. 편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소식을 뉴스 혹은 책으로 접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만 그쳤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던 시간이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단순히 동조만하는 내가 과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 전쟁 그리고 평화’ 시리즈는 전쟁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전쟁은 그 자체로 끔찍하고 잔혹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과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여서, 약하고 힘없는 존재여서가 아니다. 이는 전쟁이 가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성 때문이다. 전시강간, 강제입신, 강간, 성폭력 등과 같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을 극단화시키는 상징적인 폭력 등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 자행된다.

또 다른 시리즈물인,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한 피해와 불행에 대한 여성들의 평화운동 이야기를 다룬 ‘Pray the devil back to Hell’에서는 중동의 전쟁지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점과,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전쟁 혹은 사회의 혼란시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인 여성과 아이들이 그들의 인권을 인지하고 권리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에서 ‘레이마 그보위(Leymah Gbowee)’의 모습이 보인다.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내부분쟁이 특히 격심했던 곳이다. 종족 군벌 간의 분쟁으로 1989년에서 1992년 3년 동안에만도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7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전쟁과 분쟁이 난무하고, 내전으로 치달는 종파간의 갈등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북한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한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NGO들이 인권을 외치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지금, 이념과 종교를 떠나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외치는 당찬 여성들을 보면서도, 나는, 우리는, 한국YWCA는 더 크게 외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나눔으로 평화를!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무엘 상 25: 33)

글 | 강교재(연합회 실행위원)

3,0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털을 깎는 수확을 가진 부자 나발은 절실하게 필요한 다윗의 양식 요청을 거절하였다.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자신 이외의 다른 이들의 필요에는 무관심, 무감각, 또한 무책임한 자였던 나발은 오늘의 세속화되고 타락한 신앙인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의 평안과 소유에만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다. 나발의 무례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에 크게 분노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전멸시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였다.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감정을 절제시키고 돌발직전의 전쟁을 막으신 기록이 오늘의 본문이다. 가진 자의 인색함과 더 가지려는 욕심, 오만함과 방종함, 궁핍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굴욕과 천대, 불의한 대접에 대한 분노와 싸움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한 여성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루어 낸 결과는 싸움과 평화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준다.

1. 이기적인 욕심이 평화를 깨뜨린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다. 인간의 근원적 죄라 할 수 있는 욕심 때문에 싸움은 시작되고 평화는 깨뜨려진다. 싸움을 부르는 과시욕, 소유욕, 보호의 욕망,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 애국의 욕망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키며, 결국 자신과 이웃을 헤치는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싸움이다. 경제적인 공존은 평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궁핍함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의 배제나 소외는 반항을 촉발한다. 악이


빈곤을 초래하지만, 빈곤 역시 악을 초래한다. - Baker주석

2. 나눔과 섬김의 지혜가 평화를 만드는 힘이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을 즉시 시작하였다. 분노하여 달려오는 다윗을 막기 위하여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했다. 신속하고 용기있는 결단력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나눔과 섬김의 겸손한 자세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었다. 나눔은 자기의 소유를 필요한 자와 함께 나누는 섬김이다. 섬김은 겸손함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은 평화를 위한 쌍둥이 지혜이며 쌍둥이 힘이다.

3. 평화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평화를 위한 실천이 요구된다.

평화는 바깥에서부터가 아닌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며, 바깥이 아니라 영혼 속에 거한다. 평화는 오직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과 마음이 묶여야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이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참 평화는 가능하며, 자기 안에 평화를 가진 자만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이 평화를 갈망함이 평화를 이루는 시작이다.

그러나, 평화는 갈망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완성된다. 가정, 사회, 조직, 민족의 평화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 정신과 가치관 없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비가일 같은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평화운동이다. YWCA가 2012년을 평화의 해로 정하고 북한의 어린이들을 평화의 왕, 예수의 가슴으로 품고 ‘나눔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우리들의 신앙고백이며, 시대적 책임이요, 꼭 필요한 신앙고백의 실천이다. 21세기 아비가일, 평화의 일꾼들로 헌신하는 Y가족들이 되기를.... 

●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성인지에산제도 포럼
고양Y는 11월 2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성인지에산제도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날 주제발제를 한 이갑숙(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은 고양시성인지예산조례, 고양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그리고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주현 안산Y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성인지에산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 부천YWCA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활동
부천지역의 7개 시민사회단체(부천YWCA, 부천YM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는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오후 7시~9시, 부천과 송내역에서 '2012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9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3분기 본·지부 실무자 정책포럼
수원Y는 11월 13일 본·지부 실무자 대상 3분기 정책포럼을 실시했다. 이번 포럼에서 실무자들은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활용과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오산롯데마트에 방문했다. 이후 순교성자인 보령 갈매꽃성지와 서산 해미읍성에 찾아가 영적에너지를 얻기도 했다.

안산 YWCA 문정은 간사

● 안산 919 취업박람회
안산Y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안산일자리센터와 함께 10월 19일 '안산 919 취업박람회'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는 특성화고 졸업예정 학생들과 여성 구직자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현장면접을 통해 14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양 YWCA 최정근 팀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EM캠페인 및 EM청소
안양Y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정기적인 EM 무료배부와 EM 캠페인 및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Y는 지난 10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평촌수산(주)과 '지구를 살리는 착한시장 EM 환경운동'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의정부 YWCA 김정은 간사

● 다문화 가족 멘토-멘티 한마당
의정부Y는 11월 16일 다문화 가족 멘토-멘티 한마당을 열었다.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사업에 참여했던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편지쓰기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시간을 가졌다.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 파주YWCA합창단 창단 및 특별연주
파주Y는 파주YWCA합창단을 창단하고 11월 6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제1차 파주시 해피복지포럼에서 특별초대 오프닝 연주를 했다. 파주YWCA합창단은 지난 9월 말에 창단되었으며 현재 단원추가모집 중에 있다. 2013년 10월에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 YWCA 이유신 팀장

● 생산자·소비자 교류활동
평택Y는 11월 3일 평택 로컬푸드생산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완주군 지역순환센터를 찾았다. 평택Y는 평택시농업정책과, 생산자, 소비자 대표들과 함께 평택시의 로컬푸드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중부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논산Y는 11월 10일 논산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평화를 꿈꾸는 청소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에 관해 심각성을 깨달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길 소망한다.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아파트 좋은문화정착사업
대전Y는 대전광역시시의 지원을 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공동체의 좋은 문화 확산을 위해 텃밭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파트에서 텃밭가꾸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세종 YWCA 홍진영 간사

● 시민환경강연회

세종Y는 11월15일 동국대 김익중교수님을 모시고 시민환경강연회를 열었다. '한국 탈핵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핵발전의 위험성을 공유하였으며 대체에너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천 YWCA 류인숙 팀장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제천Y는 11월 1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제2회 민관합동 워크숍-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

천안Y는 11월 16일 민·관 합동 워크숍-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1회 천안YWCA 후원을 위한 문화의 밤

천안Y는 11월 22일 Y회원과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의 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운동의 장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기획하였다. 후원금의 일부는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녹색나눔장터마당



충주Y는 씽크머니 방과후 활동 후속프로그램으로 11월 10일 녹색나눔장터마당을 열었다. 씽크머니 교육을 받은 4개 지역아동센터와 Y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모금에 동참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 서부

광주 YWCA 김해정 간사

● 광주YWCA 창립9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11월 5일 대강당에서 창립 9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있었다. 1부 기념예배(안영로 목사), 2부 기념식에서 최양남 회장 기념사, 차경애 연합회 회장 격려사가 있었고, 강운태 시장(광주광역시), 조호권 의장(광주광역시의회), 노자키 치요 사무총장(후쿠오카)의 축사에 이어 공로패, 감사패, 50년 부부회원패 전달식 및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기금전달, 연변희망촌 후원금 전달이 있었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아동·여성폭력방지캠페인

남원Y는 11월 23일 도통동공원에서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시인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폭력 방지 홍보물 전시, 기념품 배부, 서명운동 및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목포 YWCA 황정원 팀장

● 추석바자회 수익나눔 행사



목포Y는 11월 9일 추석바자회 수익금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추석바자회의 수익금 1,600만원은 전액 나눔 행사로 지원되었다. 이날 진행된 나눔 행사에는 70여명의 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나눔 대상에는 목포 밥퍼를 비롯한 단체 24곳, 개인 22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후원, 북한 분유보내기 후원, 북한안주지역 수해 돕기에 지원되었다.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 '도서관 놀이터' 체험프로그램

서귀포Y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11월 15일 부모와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서관 놀이터' 프로그램을 열었다. '도서관 놀이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6시 ~ 7시에 진행하며 1회기 '책표지 가방만들기', 2회기 '나만의 책갈피', 3회기 '나만의 한지수첩 만들기', 4회기 '한지공예 4각접시 만들기', 5회기 '한지공예 연필꽂이 만들기', 6회기 '편지봉투 만들기'를 진행한다.

순천 YWCA 김정민 팀장

● 멋쟁이Y인형극단 순천시 수어경연대회 참가

순천Y 실버인형극단 멋쟁이Y인형극단이 11월 16일 순천제일대학에서 열린 순천 사랑의 수어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순천시가 주관하는 수어대회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동화구연반 '제13회 어린이동화구연대회' 상

여수Y는 제13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사)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광주·전남지회 주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우예린(초1) 어린이가 대상인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여수Y는 토요일 프로그램 동화구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16명이 입상하였으며 우예린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전북하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전주Y 전북하나센터가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9일 전주대학교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원방안' 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의 건강한 사회적응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각계 전문가와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100여 명이 모였다.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 2013 민들레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제주Y는 10월 23일 013제주YWCA 민들레회원증모개회식을 개최했다. '마음을 움직이는 회원증모운동 전략' 에 대한 강연(하선규 부산Y 전 사무총장), 2013년 민들레회원증모개회운동 방향 소개가 있었다. 민들레회원증모개회운동은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Y의 의미를 알리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주YWCA 여성합창단 40주년 기념 제18회 정기연주회

제주Y는 여성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제1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10월 29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축복의 길' 을 시작으로 워십공연과 특별출연 뉴마트리오의 공연으로 꾸려졌다. 도민 200여명이 함께 해 4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동부

거제 YWCA 김의향 팀장

● 제12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거제Y는 11월1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제12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거제윈드오케스트라와 마림바, 오카렐라와 함께 멋진 공연을 보여 주었다.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 홀로노인 겨울 나기 돕기

김해Y는 11월 23일 6개 동· 면에 거주하는 홀로 계신 어르신 100여 명에게 겨울내의를 전달하였다. 이번 기금은 지난 10월 5일 일일찾집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홀로 노인들에게 회원들의 사랑을 전한 시간이었다. 돌봄으로 정의·나눔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김해Y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저개발국가여성 지도력지원을 위한 바자회



대구Y는 11월 17일~22일까지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에서 저개발국가여성 지도력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대구Y가 돕고 있는 '저개발국가 여성 지도력개발을 위한 장학사업-초은뜸기' 관련 자료전시와 북한어린이에게 '사랑의 분유보내기' 운동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다. 바자회 기금은 저개발국가여성 지도력지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마산 YWCA 이애라 팀장

● 마산YWCA 환경사랑 음악회

마산Y는 11월 17일 마산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환경사랑 음악회를 열었다. 마산Y 회원합창단(예찬회)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를 합창하였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환경 사랑 생활 속 실천들이 이웃과 지역사회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천 YWCA 강선희 간사

●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외국인 말하기 대회 으뜸상

사천Y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부티팀 씨가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주최로 열린 외국인 말하기 대회에서 1등상 으뜸상을 수상하였다.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 다문화여성 예절교육



안동Y는 10월 30일 다문화 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한국예절 배우기 교실을 진행하였다. 다도 예절, 한복 착용법과 절하는 법 등을 배웠다. 이를 통해 다문화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다.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 미래소비자교육

양산Y는 10월 25일부터 3일간 양산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미래소비자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경제적 시각을 넓히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알아 올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YWCA News

회원YWCA 소식

울산 YWCA 이만정 간사

● **매월 22일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
 울산Y 사회개발부는 롯데광장에서 '매월 22일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에코트리에 사랑을 담아주세요'라는 주제 아래 에코나무에 버스손잡이를 달아 울산 시민들에게 손잡이를 잡고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200여 명의 울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우리 학교는 친친Y파이존' - 학교 공간 바꾸기**

 진주Y는 '우리 학교는 친친Y파이존' - 학교 공간 바꾸기 사업을 하였다. 삼현여중의 운동장 벤치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었다. 11월 2일 삼현여중 운동장 벤치구역에서 진주Y 사무총장, 삼현여중 행정실장, 교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통영 YWCA 이희경 간사

● **통영YWCA 큰장날**
 통영Y는 11월 10일 문화마당에서 '큰장날' 행사를 가졌다.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운동을 지역에 나누기 위하여 유기농 인증서를 받은 과일과 산지 직거래 젓갈류를 포함하여, 지역특산물과 EM 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물품들과 먹거리의 장을 열었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엄친아VS엄친아 토크톡**
 포항Y는 'POSCO-YWCA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0일, 24일 '엄친아 VS엄친아 토크톡'을 진행하였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1:4 소그룹 대화를 통한 청소년, 부모이해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멘티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듣지 못했던 어른들의 청소년기를 나누고, 멘토는 청소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충고나 훈계방식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보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객님의 평생건강을 위해
 고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객님의 평생건강을 위한 동반자로서 고객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을 하고자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1등 건강복지는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고객제안**
 - 고객님의 아이디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건강보험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특정분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의견은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귀 기울여 듣고 경영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국민토론평**
 - 건강보험 경영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고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차수에 토론을 원하는 주제를 고객님의께서 직접 제안하여 다른 고객의 의견을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객 모니터단**
 - 고객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을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대외 활동에 적극적인 인물은 다음차수 모니터단 운영에 참여하셔서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유게시판**
 - 국민건강보험 이용에 불편하신 점이나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고객님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 **저출산대책 의견방**
 - 임신과 육아 걱정 없는 다자녀 가족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건강사랑방**
 -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행복한 웃음이 있는 건강 이야기방입니다. 잔술하고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체험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님의 평생건강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 하겠습니다.